

이희호 여사 오늘 방북...김정은 만나나

3박 4일 일정...백낙청·장충식 등 18명 동행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관계 돌파구 기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경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4일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이 여사는 오는 5일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해서 직항으로 평양을 방문, 3박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 병원, 묘향산 등을 방문한다.

작년 말부터 추진된 이 여사의 방북은 전날 북측이 김대중평화센터 측으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확정됐다.

북측이 발송한 초청장에는 이 여사를 포

함한 방북단 19명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북단에는 수행단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최용준 천재교육 회장, 윤철규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최경환 공보실장 등이 포함됐다.

이 여사의 방북은 2011년 12월 26~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이 여사는 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게 조의를 표했으며 아주 짧은 시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방북에서 이 여사와 김 제1위원장과는 별도 면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여사 방북을 추진한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김 제1위원장이 작년 말 진서로 초청했기 때문에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과는 면담이 성사되면 이 여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 8·15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회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현안을 의제로 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여사의 방북 기회를 활용해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남북관계 전환점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 민간단체 추진한 8·15 남북공동행사는 북측이 2차 실무접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성사가 어렵게 됐다.

한편, 여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하루 앞둔 4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방북인 만큼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는 면담이 성사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불출마 선언' 野圈서도 나올까

'김태호 불출마' 여파 野 혁신위원들 당 종진 결단 촉구

4일 이뤄진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 여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합에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새정치연합 일부 혁신위원들이 당내 의원들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동안 물 밑으로 가라앉았던 86 그룹 하방론, 친노 핵심 인사들의 용퇴론 등이 다시 거론되면서 신당 창당 움직임과 맞물려 뒤송송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이동학 혁신위원은 트위터 글에서 "김태호 의원의 '셀프디스' 불출마... 이미 우리 지고 있다. 소리 할지라도 소에서도 지고 있다"며 "너도 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국민이 답답하고 대한민국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불출마 선언 등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나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과의 인적 쇄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혁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야당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새

정치의 다산 증진 의원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 '용퇴'를 포함한다는 질문에 조 의원은 "용퇴를 할지 적지 출마를 할지 어떤 것이 새정치연합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도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의 사퇴와 관련,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도 현신과 희생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 위기 극복을 위한 용퇴의 물꼬가 타진다면 이는 혁신을 지지하는 지렛대가 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노 진영에서 과연 용퇴를 결단하는 의원이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당내 관계자는 "친노 핵심 인사 대부분이 정치적 혁신법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희생과 헌신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친노 원로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용퇴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례대표제법 개정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영남지역 시·도 당위원회 소속 의원 및 당원들과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정동영에 '리브콜'

전주 찾아 "오랜 동지, 친구 같은 분" 호감 표시 연대 성사뻔 야권 신당 창당 큰 추동력 발휘 주목

'호남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의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4일 전주를 찾아 정동영 전 의원에 '리브콜'을 보냈다.

연대가 성사되면 야권 신당 창당에 큰 추동력 발휘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천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전 의장(열린우리당 당시 당의장 호칭)은 정치 입문을 같이해서 오랜 동지이고 개인적으로도 친구 같은 분"이라고 호감을 표시했다.

이어 "정 전 의장만큼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용감하게 담대한 진보의 길을 걸어온 분도 없다"며 추켜세웠다.

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야당 정치 인종에서 현재 정 의장만 한 사람도 없

다"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가는 길이 조금 달라졌고 정치 지향점이 달라 선뜻 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연대설에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천 의원은 "재보선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정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재개할지를 보고 저도 그때 가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치권은 비록 천 의원이 당장의 연대설은 부인했지만, 이날 발언이 정 전 의원에 '함께 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전 의원의 앞으로의 화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의원들 "심학봉 의원직 박탈하라"

새정치, 국회 윤리위 제소 경찰은 '혐의 없음' 검찰 송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은 4일 선추문 논란에 휩싸인 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성 의원 25명을 포함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34명은 이날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이날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이 국회법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의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

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징계요구 사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원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3일 밤 9시 30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나와 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심 의원 주장과 이 여성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이르면 5일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 폭파하겠다"

언론사에 괴단체 협박 문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하루 전인 4일 오후 이 여사가 탈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문건이 일부 언론사에 전달됐다.

자칭 '북진명공자유인민해방군'은 한 장짜리 성명서를 통해 "이희호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여사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씨 왕조가 운명을 다했던 15년전에도 혈세를 지원해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

까지 안겨줘 남북 동포의 고통을 연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여사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며 "출국 혹은 귀국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분명히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방북단 수행단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 여사의 방북은 6·15 정신으로 화해, 협력해 민족이 평화롭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개심과 폭력을 보이는 것은 민족을 위한 길도, 국가를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대 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예치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